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세!
1948-2023
경축
조선
주체112
(2023)
10
(809)

주체45(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CONTENTS

특별소식

소식

기념편집

오늘의 조선

표 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뒤표지: 경축의 밤

편 집: 김정철, 김규성, 승 룡, 리명준, 전광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하시고 전군지휘훈련진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2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하시고 전군지휘훈련진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군부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면전쟁을 가상한 도발적성격이 짙은 위험천만한 대규모련합훈련을 벌려놓은 상황에 대응하여 8월 29일부터 전군지휘훈련을 조직하고 각급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지휘관, 참모부들의 작전조직과 지휘능력을 판정검열하였다.

훈련은 전군의 모든 지휘관, 참모부들이 전시체제이전때 행동질서에 숙련하며 작전전투조직과 지휘능력을 보다 높이고 작전계획의 현실성을 확정함으로써 철저한 전쟁준비태세와 군사적대응능력을 빈틈없이 갖추는데 목적을 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총참모장으로부터 전쟁발생시 시간별, 단계별정황에 따르는 적군과 아군의 예상행동기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전군지휘훈련조직정형과 진행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쑤들의 불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령토를 점령하는데 총적목표를 둔 연습참모부의 기도와 그를 관철하기 위한 각급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참모부들의 작전계획전투문건들을 료해하시였으며 유사시 전선 및 전략예비포병리용계획과 적후전선형성계획, 해외무력개입파탄계획 등 총참모부의 실제적인 작전계획문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작전초기에 적의 전쟁잠재력과 적군의 전쟁지휘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지휘통신수단들을 맹목시켜 초기부터 기를 꺾어놓고 전투행동에 혼란을 주며 적의 전쟁수행의지와 능력을 마비시키는데 최대의 주목을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적들의 중추적인 군사지휘거점들과 군항과 작전비행장 등 중요군사대상물들, 사회정치, 경제적혼란사태를 련발시킬수 있는 핵심요소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초강도타격을 가하며 다양한 타격수단에 의한 부단한 소탕전과 전선공격작전, 적후에서의 배후교란작전을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배합적용하여 전략적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쥘데 대한 문제, 특히 적의 그 어떤 반작용으로부터도 타격수단들을 철저히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 작전지휘체계와 화력지휘통신방식을 전면갱신할데 대한 문제 등 앞으로의 작전조직과 지휘, 전쟁준비에서 인민군대가 견지하여야 할 전면적인 과업들과 원칙적요구와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전은 두뇌전의 대결이라고 하시면서 전쟁에서의 승패여부는 싸움에 앞서 지휘관의 두뇌에 의해 먼저 결정된다고, 전군의 모든 지휘관들이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명활한 령군술을 소유하기 위한 참모부훈련과 작전전투정황처리훈련을 실전환경속에서 강도높이 진행함으로써 훈련이 아닌 실지 전쟁마당에서 림기응변하는 만능싸움군, 당당한 실력가들로 철저히 준비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성된 국가안전환경과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선인민군의 작전지휘훈련과 실동실전훈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지시를 포치하시면서 전쟁준비를 보다 확고히 완비하기 위한 전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북중기계련합기업소와 중요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북중기계련합기업소와 중요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북중의 로동계급이 당의 국방, 경제건설정책을 높이 받들고 생산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현 기술장비실태와 기술개건방향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년말까지 내세운 생산투쟁목표를 료해하시고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북중기계련합기업소는 나라의 선박공업발전과 우리 해군무력을 강화하는데서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중임을 맡고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선박공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혁명적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북중기계련합기업소의 현대화와 나라의 선박공업발전방향에 대하여 앞으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요한 로선을 제시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하시면서 우리 당은 북중의 혁명적로동계급을 굳게 믿는다고, 혁명의 년대들마다 투철한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의 국방, 경제정책을 앞장에서 관철해온 빛나는 투쟁전통을 가지고있는 기업소의 당원들과 로동계급이 오늘날 우리 혁명의 중차대한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당중앙의 중대결정을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앙양된 투쟁열의로 무조건 화답해나서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요군수생산공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기술현대화진행정형에 만족을 표시하시고 추가적인 생산능력조성과 관련한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무력의 강화에서 공장이 차지하고있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이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애국심을 간직하고 실력과 실천력으로 당의 국방발전정책을 받들어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주체적해군무력강화의
새시대, 전환기의 도래를
알리는 일대 사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 성대히 진행

조선로동당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수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조선식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하여 창건 75돐을 맞는 어머니조국에 선물로 드리였다.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이 9월 6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과 정부, 군부 지도간부들의 참석하에 해군 동해함대 지휘관, 해병들, 봉대조선소의 전체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들끓는 환희와 감격속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진수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천하를 휘여잡으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 부국강병을 위한 불철주야의 헌신으로 위대한 승리와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시는 강철의 령장, 탁월한 인민의 령도자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조선인민군 해군 명예위병들이 장장 70여성상 가없이 넓은 조국의 바다를 지켜 싸워온 해군장병들의 고귀한 넋이 슴배여있고 조선의 영원한 존엄과 필승불패의 상징으로 빛나는 람홍색공화국기를 서서히 게양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해군에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이관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리병철원수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제841호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관하 해당 수중함전대에 이관되고 《김군옥영웅》호로 명명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의 이관증서를 해군 동해함대관하 해당 수중함전대장에게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진수식을 축하하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진수하게 되는 제841호 《김군옥영웅》함은 우리 해군무력의 핵심적인 수중공격수단의 하나로서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수행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과 그의 혁명공업전사들이 숭고한 리상과 무비의 창조투쟁으로 출산한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산아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은 해군무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 함선공업의 가일층 도약을 결심하였으며 함선공업의 중흥은 더는 물러설 길이 없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최중대과제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련속적으로 수중 및 수상전력의 현대성을 계속 제고해나가며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추진해나갈 전략전술적구상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축하연설을 마치시자 열화같이 분출하는 전체 참가자들의 충성의 열정이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오르며 진수식장을 진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진수식을 기념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 해군의 주요지휘관들, 잠수함공장 책임일군들과 함께 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리병철원수는 공장 지배인으로부터 진수준비가 끝났음을 보고받고 진수를 명령하였다.

진수신호가 내리자 해군무력강화에서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의 순간을 체감하는 전체 참가자들의 감격과 환희를 담아 꽃보라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오르는 속에 새로 건조한 잠수함이 바다우에 떠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적국방건설정책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군수로동계급의 충성과 애국의 무진한 힘과 열정이 있어 공화국창건 75돐을 앞두고 우리 국가의 위상을 다시금 과시할수 있게 되였다고 거듭 평가하시고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새 세기 함선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진짜배기애국자, 령해방위의 병기창을 지켜선 일선전투원의 값높은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9월 7일 시험항해를 위한 출항준비를 하고있는 전술핵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돌아보시였다.

출항준비를 하고있는 부두에서는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인도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가 공화국무력의 최고사령관을 영접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의 영예의 군기와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의 무장체계와 잠항작전능력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군의 핵무장화는 더는 미룰수도, 늦출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과제로, 혁명무력건설의 중핵적요구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전술핵을 탑재한 수중 및 수상함선들을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해군이 자기의 전략적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해군무력의 첫 세대 영웅 지휘관이였던 김군옥영웅의 이름을 아로새긴 잠수함의 지휘관, 해병들답게 전세대의 위대한 해병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준비에서도 혁명전쟁 준비완성에서도 해군의 본보기, 전군의 모범이 되며 영웅해군의 새로운 신화를 계속 앞장에서 창조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잠수함 전체 해병들과 함께 《김군옥영웅》함을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6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6차 정치국회의가 9월 2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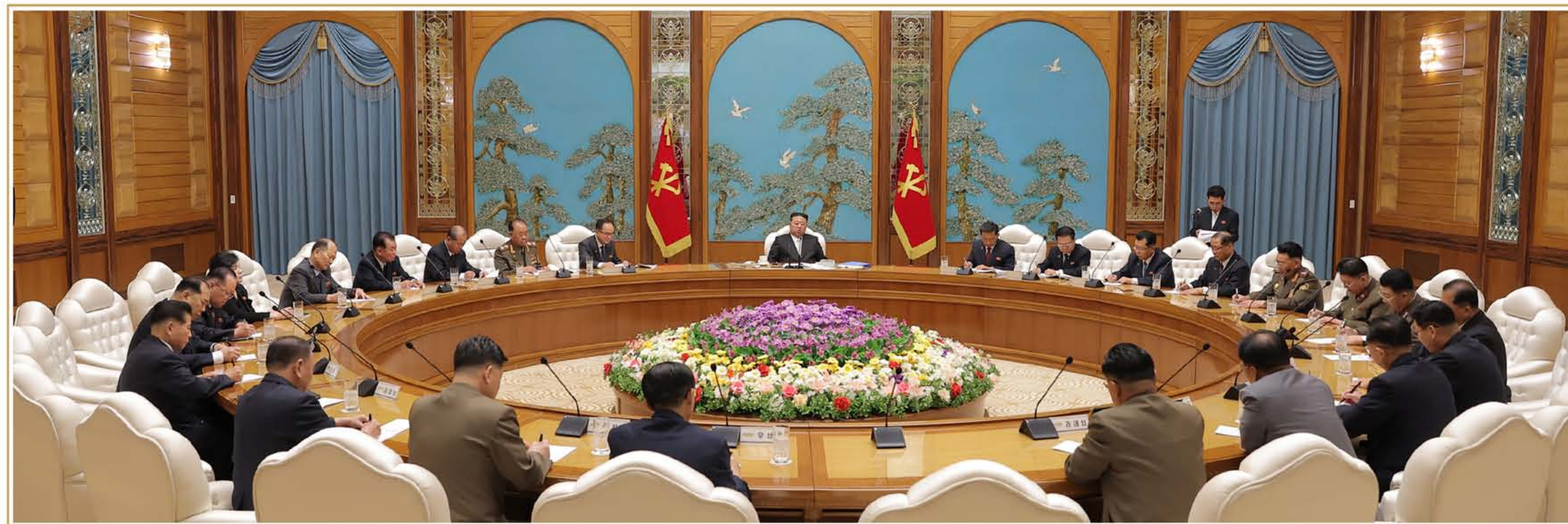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김정은**동지의 로씨야련방 공식친선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보고에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로씨야련방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신데 대한 상세한 정형이 통보되였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조로관계가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전략적높이에 올라서고 세계정치지형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보고에서는 **김정은**동지의 로씨야련방방문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분석하고 전망적인 조로관계발전계획들이 소개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동지의 로씨야련방방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해외방문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치국의 높은 평가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예로운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갈 굳은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방문성과를 공고히 다지기 위한 실천단계에서 전통적인 조로선린협조의 뉴대를 더욱 굳건히 하며 모든 분야에서 쌍무관계를 보다 활성화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갈데 대하여 포치하시면서 각 분야의 협조를 다방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조로 해당 부문들사이 긴밀한 접촉과 협동을 강화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총비서동지께서 진행하신 대외활동성과를 실천적으로,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기 위한 일련의 방도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법기관, 금융부문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해당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헌법개정에 대한 첫째 의정토의에 방청으로 참석하시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대의원이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속에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를 담아 가장 력사적인 결의권을 행사하고 공화국의 헌정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장식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시면서 전체 인민에게 숭고한 경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맞이하고있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앞으로의 투쟁방향과 정책적과업들을 언명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년말까지 완강하고도 실속있는 투쟁으로써 2023년을 자랑찬 승리로 결속할데 대하여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강대무비한 국력의 줄기찬 강화를 위한 백승의 실천강령, 인민의 리상사회건설을 촉진하는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감격과 환희에 넘쳐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를 터쳐올리였다.

회의에서는 다음의정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 관개법, 공무원법초안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대의원들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심의보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부문 법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가 토의되고 그에 대한 결정이 일치가결되였다.

회의는 여섯째 의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함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의는 일곱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혁명은 간고하고도 완강한 투쟁으로 이룩한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전진과 력동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은 우리의 사회주의발전로정과 공화국의 력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올해에 전인민적인 투쟁기세를 더욱 배가하여 2023년을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데 대하여 호소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하였다고 하시면서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의 부름에 언제나 애국충성으로 화답해온 우리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주요 당 및 국가정책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헌신적투쟁을 과감히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우리가 이룩한 성과중에 가장 큰 성과는 나라의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은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바로 1년전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국가핵무력정책을 엄숙히 법화한 이 의사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명기할데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한것은 매우 심원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로써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와 국가핵무력정책을 공화국 최고법으로 담보하는 필수불가결한 력사적, 정치적과제가 빛나게 달성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의 핵무력건설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다칠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력사적인 사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직 자존과 존엄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와 의지가 전체 인민의 신념으로 굳건한 국가, 실제로 세대를 잇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전대미문의 투쟁으로 핵보유의 대업을 성취하고 그것을 자주와 정의, 발전의 가장 귀중한 절대적힘으로 틀어쥔 정부와 인민만이 이러한 기적을 탄생시킬수 있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하고 신성한 투쟁의 전취물을 헌법으로 고착시키는 대단히 중대하고 의의있는 국정토의에서 자기의 결의권을 가장 책임적으로 행사하여준 대의원동지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한데 이어 헌법에까지 당당히 명기함으로써 자주적이며 자위적인 국가건설과 국가방위력강화의 전위를 개척한데 대하여 응당한 자긍심을 가져야 하며 이 력사적인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현 단계의 투쟁강령실현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잠시도 멈춤없이 추진시켜야 할 중대과제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 단계에서의 우리 당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다시금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면서 그에 립각하여 대외사업을 능동적으로 전개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외사업부문에서 당중앙의 대외전략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 혁명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폭넓고 전망성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련대를 가일층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치와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지금까지의 투쟁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당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이 포치한 계획과 당면과업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관철하고 훌륭한 실체로 전환시키는데 끊임없는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인민경제발전 12개고지를 비롯한 경제목표들을 빛나게 달성하여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문제해결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은 제일 절박한 과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과 도, 시, 군인민위원회들은 나라의 경제전반과 해당지역의 경제사업실태를 말끔히 장악하고 변천하는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맞게 경제작전과 지도를 보다 치밀하고 박력있게 하여 당과 국가가 결정한 경제발전목표와 과업들이 철저히 완벽하게 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맡은 경제부문들에서 공화국력사에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펼쳐놓은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새로운 생산적앙양과 혁신적성과를 이룩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전반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하고있는 공화국정부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계속 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지방건설, 농촌건설을 통이 크게, 힘있게 내밀고 당의 육아보육정책, 경공업정책들을 정확히 집행하며 국토의 면모와 생태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우리 국가의 인민적성격으로부터 반드시 결실을 안아와야 할 중요과업들이라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인민의 대표들인 대의원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이는것이 비할바없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실지 남달리 높은 애국심, 애민정신을 체질화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의 리익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분투해나갈것을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화보 【특별소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
성대히 경축
1948-2023
75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9월 8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 책임일군들, 도당책임비서들, 도인민위원장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공로자,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대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 경축 행사참가자들, 당중앙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혁명학원 학생들,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가 하였다.

김덕훈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이 세계에 선포된 력사의 그 시각과 더불어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향도와 인민정권의 불패의 생활력에 의하여,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쥔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짧은 력사적기간에 강국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였으며 존엄과 영광으로 빛나는 75성상의 불멸의 행로에서 오늘과 같은 강대한 국가가 태여나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비상히 상승하여온 공화국의 국력과 위상은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 우리 인민정권과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의 승리인 동시에 그 정당성과 우월성, 불패의 생활력을 꿋꿋이 지켜낸 우리 인민의 억센 자존심과 강인성의 승리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혁명해온 지난 10여년의 투쟁이 이를 훌륭한 결실로써 증시해주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주권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전반적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어떠한 위기하에서도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민의 권익을 실현하는 자기의 신성한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김덕훈동지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당의 령도밑에 부흥강국의 리상을 향해 한마음한뜻으로 달려온 우리의 신념과 노력을 위대한 새 승리로 이어놓는 오늘의 력사적인 투쟁에서 모두가 위훈의 창조자,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가 있고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이 있기에 공화국의 앞길에는 자랑찬 승리와 영광, 끝없는 번영이 펼쳐지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화보
【특별소식】
영광스러운
경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이 9월 8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위훈떨쳐온 민방위무력의 열병대오가 도도히 굽이치게 될 광장은 위대한 강국의 탄생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관중들의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수도의 밤하늘을 활무대로 항공체육명수들이 특색있는 집체강하기교를 펼치고 람홍색 광채를 뿌리는 공화국기를 거폭으로 휘날리며 날아내려 경축열기를 더해주었다.

세기의 창공에 눈부시게 빛발치는 내 조국의 력사를 수놓는듯 비행기편대가 수자 《75》를 형상한 대형을 짓고 축포탄을 쏘아올리며 축하비행을 진행하였다.

종합군악대의 군악례식이 있었다.

위대한 강국의 힘,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한길을 따라 급속도로 비약하며 눈부신 미래에로 달려나가는 강용한 인민의 기상을 안고 민방위무력 열병종대들이 광장으로 진입하였다.

화보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여 열병대원들과 경축행사참가자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를 위시하여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리병철원수, 박정천원수와 군부의 지휘관들이 주석단 특별석에 자리잡았다.

당과 정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온 로간부들이 주석단에 자리잡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하고있는 국무원 부총리 류국중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알렉싼드르브명칭 로씨야군대아까데미야협주단 성원들과 조선주재 중국과 로씨야의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 경축행사참가자들이 초대석에 자리잡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게양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빛나는 조국》의 노래주악과 함께 21발의 례포가 발사되였다.

이어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오일정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준비검열을 받기 위해 정렬한 열병부대들을 점검하였다.

김정은동지께 오일정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이 준비되였음을 정중히 보고올리였다.

인민군대와 함께 공화국무력의 2대기둥이 되여 전민항전의 철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나가는 강위력한 전투대오인 민방위무력의 장엄한 열병행진이 시작되였다.

열병대오의 선두에는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를 제일 가까이에서 보위하는 친위전사들답게 인민사수전의 최전구마다에서 별동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친 조선로동당의 강력한 핵심력량인 수도당원사단종대가 서있었다.

평양시로농적위군종대에 이어 조국의 서부국경관문을 억척같이 지켜선 평안북도 로농적위군종대와 수도 평양을 옹위하는 위성도인 평안남도 로농적위군종대가 붉은기를 나붓기며 위엄있게 나아갔다.

알곡생산목표점령을 인민경제발전 12개중요고지의 첫번째 고지로 내세운 당중앙의 의도를 제일선에서 받들어나가는 농업전선의 전초병대오인 황해북도, 황해남도 로농적위군종대들의 발걸음도 드높았다.

풍파사나운 력사속에서 조선혁명위업이 어떻게 지켜지고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로선이 어떻게 보위되였는가를 웅변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로 조국의 전진비약의 봉화가 되고 초석이 되였던 시대정신창조자들의 남다른 자부를 안고 자강도, 강원도 로농적위군종대가 힘차게 용진해갔다.

나날이 강대해지는 공화국의 모습을 무적의 총대에 비껴안고 굴지의 대공업기지들을 지켜선 함경북도, 함경남도 로농적위군종대와 혁명의 성지, 백두대지를 옹위하는 억센 성벽인 량강도 로농적위군종대, 각 직할시 로농적위군종대들에도 무적필승의 기상이 약동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궁지높은 력사와 전통을 세대와 세기를 이어 빛내여나가며 주체교육의 최고전당, 혁명인재육성의 본보기대학으로 이름떨치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로농적위군종대가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해나가는 맹장부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열병광장을 활보해갔다.

자립경제의 쌍기둥인 금속공업, 화학공업부문을 지켜선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로농적위군종대를 비롯하여 경제건설의 중요고지,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의 주타격방향에서 련대적혁신과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중요공업부문의 로농적위군종대들이 련이어 광장으로 들어섰다.

일터에선 소문난 혁신자, 다수확농민이 되고 총을 잡으면 백발백중의 명사수, 명포수가 되여 로동과 국방에 이바지해나가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원군 원화농장 로농적위군종대를 비롯한 열병종대들이 당의 주체적인 민방위무력건설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주며 희열에 넘쳐 주석단앞을 행진해갔다.

과학기술로 공화국의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견인해나가고있는 과학자들의 대부대 국가과학원 로농적위군종대에 이어 문화성, 체육성, 보건성 로농적위군종대에도 지혜와 땀과 열정을 다 바쳐 사회주의문화의 개화기를 열어나갈 애국의 일념이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항일의 소년선봉대, 전화의 소년빨찌산의 고귀한 넋을 간직한 붉은청년근위대종대가 정든 교정과 사랑하는 고향산천을 굳건히 지켜싸울 철석의 맹세드높이 기세충천하여 전진해갔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천하를 휘여잡으시는 희세의 령장,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승리와 번영의 활로를 여시며 조국의 창창한 앞날을 펼쳐가시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만을 세월의 끝까지 받들어갈 결의를 담아 열병대원들이 터쳐올리는 신념과 의지의 함성이 광장을 진감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체 인민이 총검을 틀어잡고 전국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된 강대국의 위상을 힘있게 떨치며 로농적위군의 기계화종대들이 진군을 개시하였다.

신속한 기동력을 갖춘 모터찌클종대에 이어 사회주의 농촌에서 기계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는 뜨락또르들이 견인하는 반땅크미싸일종대와 자기 마을, 자기 일터의 상공마다에 철벽의 진을 친 고사포종대, 로농적위군의 전투능력을 과시하는 위장방사포병종대들이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안길 만반의 림전태세를 갖추고 광장을 누벼나갔다.

조선혁명무력의 강대함은 천하무적의 정규군과 함께 현대전의 그 어떤 군사작전과 전투도 자립적으로 치를수 있는 위력한 민방위무력을 가진데 있음을 세계앞에 선언하며 기계화종대들이 도도히 광장을 굽이쳐갔다.

그 어떤 적대세력도 감히 넘볼수 없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억척같이 다지시여 진정한 평화와 후손만대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의 만년담보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열병식이 끝나자 경축의 축포와 고무풍선들이 하늘을 뒤덮고 열화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열병광장을 진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사회주의건설과 국가방위력강화에서 새로운 기적과 승리를 떨쳐가는 조선인민의 혁명적기상과 불굴의 투쟁기세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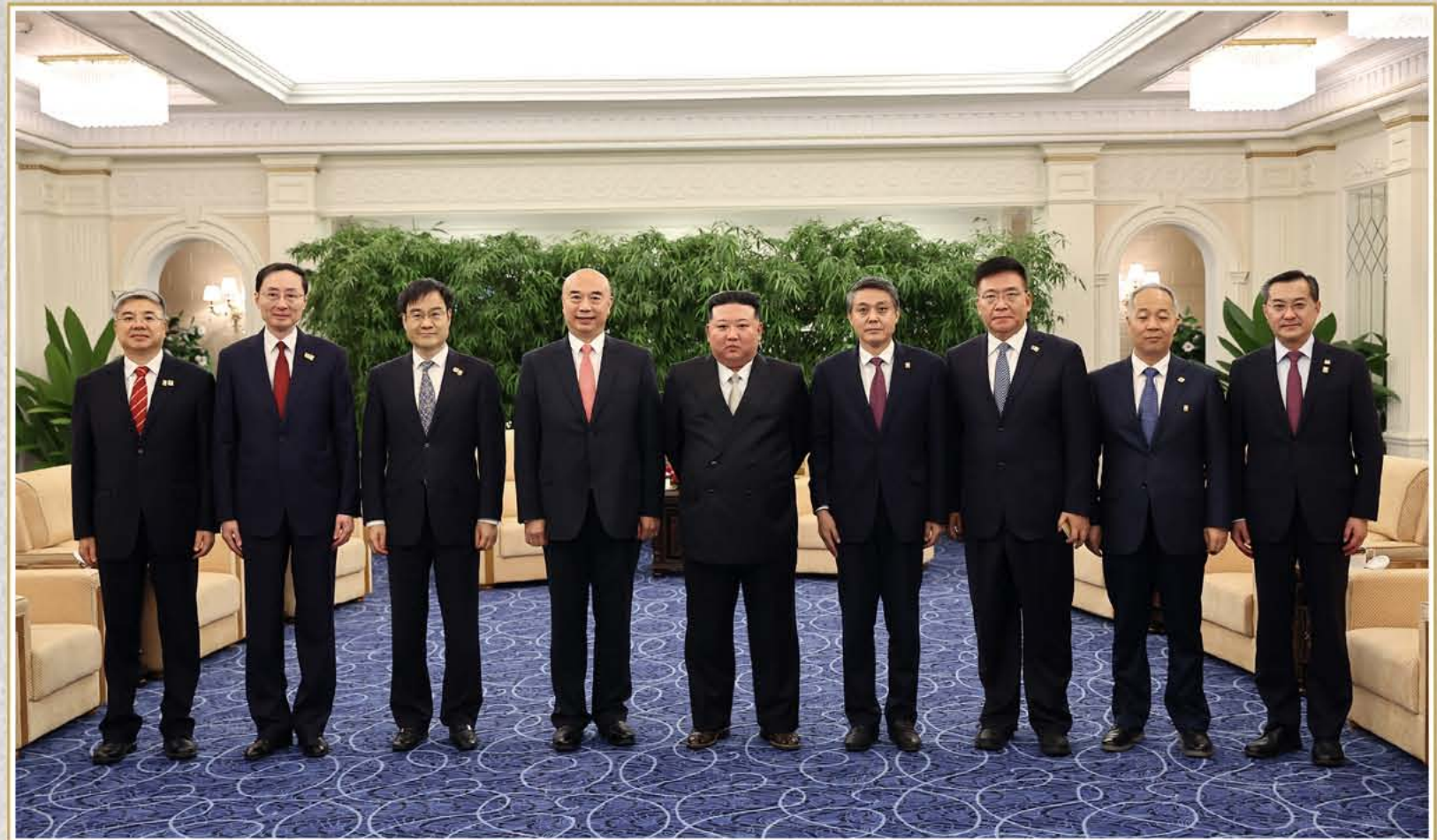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창건 75돐 경축행사참가자들, 민방위무력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8일 공화국창건 7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하고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류국중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존경하는 습근평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에 즈음하여 우리 당과 정부, 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주고 뜻깊은 기념행사에 당 및 정부대표단을 파견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동지들이 공화국창건기념행사에 참가하여 우리 국경절행사가 더욱 빛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통하여 습근평동지와 중국당과 정부가 조중관계의 특수성을 매우 중시하고있다는것을 깊이 느꼈다고 하시면서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가 건강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을 령도하는 중임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시면서 중국인민이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화의 부흥이라는 원대한 꿈을 반드시 실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친선적인 담화에서는 조중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여러 분야의 협조와 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해나갈데 대하여 견해일치를 보았다.

담화는 시종 동지적우의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화보 【특별소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홰불야회 진행
500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홰불야회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애국청년들 앞으로!》가 9월 8일 밤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홰불야회는 걸출한 수령들을 높이 모시고 성스러운 공화국기에 승리와 영광만을 새겨온 애국충정의 력사를 피줄처럼 이어가는 수백만 청년대군이 있어 사회주의 조선의 미래는 무궁창창하다는것을 보여주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대공연 진행

【소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에 즈음하여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는 근로자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에 즈음하여 각지에서 국기게양식들이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중앙미술전시회와 중앙산업미술전시회, 우표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
조선로동당

주체34(1945)년 10월 10일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날이다.

최장의 사회주의집권당력사에 승리와 영광의 빛나는 자욱을 새겨온 조선로동당이 창건 78돐을 맞이하고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인민을 이끌어 국가건설의 새시대를 펼쳐나가고있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가 펼쳐지고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이 세계만방에 더 높이 떨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어머니당의 창건기념일을 맞는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면서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굳은 맹세를 다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세!
1912
태양절
2022
백두의혁명정신
태양절

금성뜨락또르공장

나라의 농기계공업발전을 견인하고있는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창조와 혁신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다.

공장을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을 확실하게 담보할 핵심공장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년간 공장의 생산능력은 비약적으로 장성하였다.

지난해 공장에서는 1단계 개건현대화사업을 완수하여 주요생산공정들의 자동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부분품생산에서 제기되는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생산원가를 낮추면서도 능률적인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제작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지금도 공장에서는 설비현대화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하는것과 함께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면서 여러가지 농기계생산을 다그치고있다.

주물, 주강, 제관, 단조, 치차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비상한 열정을 발휘하면서 매일 생산계획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수행하고있다.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해당 과학연구단위와의 긴밀한 협동밑에 개건현대화사업을 줄기차게 내밀면서 성능높은 새 농기계들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있다.

금성뜨락또르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비상한 열의속에 공장에서 만든 새로운 농기계들이 각지의 전야를 뒤덮을 그날은 더욱 앞당겨지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최광호

들끓는 전야

가을이 왔다.

봄내 여름내 품들여 가꾼 곡식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모습이 황금빛으로 단장된 전야마다에 비꼈다.

년초부터 씨뿌리기와 모내기, 김매기를 비롯한 영농공정수행을 위해 한결같이 떨쳐나서 재해성이상기후가 지속된 올해에도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 애써온 그들이다.

수확의 계절을 맞으며 전국각지의 농장들에서는 지역적특성에 맞게 시기를 정하고 벼수확기 등 기계수단들을 모두 발동하여 가을걷이에서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나라의 농사를 함께 책임졌다는 심정으로 한해동안 물심량면의 성의를 다해온 수많은 지원자들도 농업근로자들과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금나락 설레는 포전에 아낌없는 땀방울을 흘리고있다.

한해농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영농공정수행에 매진하는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기세와 열정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더더욱 끓어번지는 각지의 전야들이다.

사진 황정혁
글 박의철

복받은
대지

과일향기 넘치는 룡전땅

- 함경남도 북청군 룡전과수농장을 찾아서 -

함경남도 북청군은 전국에 이름난 과수고장이다.

20여개나 되는 이곳의 과수농장들중에서도 북청강의 오른쪽기슭을 따라 드넓은 과원을 펼친 룡전과수농장은 특히 유명하다.

룡전리는 온 나라를 과일동산으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이 꽃핀 력사적인 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8(1959)년 10월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나 이곳을 찾으시여 과수업발전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된 농장에서는 지금껏 다수확품종의 과일나무모들을 년차별로 키우고 그루바꿈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면서 모든 과수밭들을 훌륭히 관리하여오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농장에서는 묘목생산능력, 과일보관능력을 더욱 확장하고 과일가공기지의 생산능력과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생산장성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올해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일대풍을 안아오기 위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이른봄부터 고리형순환생산체계에 의해 생산된 유기질비료와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질좋은 비료들을 정보당 수십t씩 시비하여 지력을 높여왔다.

룡전에서 나는 사과는 빛갈이 곱고 당분과 즙이 많으며 향기롭고 맛이 특이하게 좋아서 널리 알려져있다.

이와 함께 과일나무비배관리에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들도 자체로 생산하여 시비하면서 과일나무들의 영양상태를 부단히 개선하였다.

하여 이상기후가 지속된 올해에도 또다시 흐뭇한 작황을 마련하게 된 룡전과수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다.

지금 농장에서는 수확순차를 바로 정하고 잘 익은 과일들을 한알도 허실없이 따들이는것과 함께 여러가지 맛좋은 과일가공품들을 생산하여 군과 도안의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하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박병훈

통천물고기 가공사업소

강원도의 통천앞바다는 수산자원이 풍부하기로 널리 알려져있으며 해마다 물고기잡이철이면 조선동해안 각지 수산사업소의 수많은 고기배들이 이곳에 모여들어 어로활동을 경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 이 어장과 가까운 강원도 통천군의 거성지구에 현대적인 물고기가공기지가 새로 일떠섰다.

하루 수백t의 급동능력과 수천t의 랭동저장능력을 가진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가 조업한 때부터 사업소의 부두는 물고기잡이계절이면 매일같이 흥성인다.

풍어기를 날리는 고기배들이 여러척씩 동시에 입항해도 부두가에 장비된 능률높은 기계설비들과 종업원들의 재빠른 일솜씨에 의해 선창의 물고기들은 잠간사이에 하선된다.

현대적인 설비들이 갖추어진 랭동 및 가공장으로 옮겨진 물고기들은 세척, 선별공정을 거친 다음 경사승강콘베아, 공중이동콘베아를 타고 자동적으로 립식급동기들에 쌓여진다.

사업소에 꾸려진 어로공들을 위한 편의건물과 식당도 그들이 만선의 기쁨을 한껏 즐기도록 하여주고있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에게 언제나 생신한 물고기를 보내줄 마음 안고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박병훈

즐거운 야영생활

-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찾아서 -

강원도 문천시의 바다기슭에 주체52(1963)년에 창립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가 자리잡고 있다.

야영소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며 전국의 경치좋은 곳들마다에 소년단야영소를 세우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이 깃든 청소년과외생활기지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빛나게 이어가시며 각지의 소년단야영소들을 훌륭히 개건할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야영소의 개건형성안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지도해주시였다.

그리고 주체105(2016)년 12월에는 몸소 이곳을 찾으시여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우리가 지켜주자고 하시며 야영소의 문화교양시설과 생활조건을 더 잘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종합적인 청소년과외생활기지로 개건된 야영소에는 파도를 헤가르는 돛배를 형상한 2개 호동의 야영각과 함께 식당, 회관, 해수욕장, 체육관, 운동장, 물놀이장, 로라스케트장 등이 갖추어져있다.

한번에 수백명씩 도안의 학교들에서 모여온 소년단원들이 이곳에서 한주일을 기한으로 다채로운 야영생활을 진행하고있다.

야영소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은 청소년들의 년령과 심리에 맞게 야영일과를 재미나게 조직하는것과 함께 그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고있다.

화보 【오늘의 조선】

일년사계절 언제나 흥성이는 야영소에서 가장 볼만한것은 여름철의 야영생활모습이다.

체육관과 운동장에서의 경기들도 신바람나지만 해수욕은 야영생들모두에게서 제일 인기가 높다. 쉽없이 출렁이는 넓고 푸른 바다에 뛰여들어 수영을 배우기도 하고 백사장에서 유희오락경기들도 펼치면서 시간의 흐름을 거의나 잊다싶이 하는 아이들이다.

전자도서열람실이며 종합지식보급실에서 해양지식과 동식물지식, 과학기술원리 등을 체득하기도 하면서 야영생들은 학교들에서 배웠던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해나간다.

예술소품공연과 솜씨전람회 등을 통하여 자기들의 재능을 보여주기도 하고 제손으로 밥과 여러가지 음식들을 만들기도 하면서 유쾌한 야영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들이다.

그 과정에 야영생모두의 마음속에 한생토록 잊지 못할 추억들이 새겨지고있다. 앞날의 훌륭한 주인공으로 준비해갈 결심도 함께.

사진 리철진
글 박병훈

ㄱ-23088009431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